



MINBYUN-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
**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**

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

전화 02)522-7284, 팩스 02)522-7285

웹페이지 <http://minbyun.org>

전자우편 [admin@minbyun.or.kr](mailto:admin@minbyun.or.kr)

문서번호: 24-08-노동-02

수 신: 각 언론사

발 신: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(담당: 070-5176-8169 이현아 간사)

제 목: [취재요청] 아리셀-에스코넥 대표이사 박순관, 아리셀 총괄본부장 박중언 구속촉구 노동  
법률단체 기자회견

전송일자: 2024. 8. 26.(월)

전송매수: 총 2매

### [취재요청]

## 아리셀-에스코넥 대표이사 박순관, 아리셀 총괄본부장 박중언 구속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

- 일시: 2024. 8. 27.(화) 10:00

- 장소: 수원지방법원 북문(상가 방향)

- 주최: 노동법률단체 [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,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, 민주주의법학연구회, 법률원(민주노총·금속노조·공공운수노조·서비스연맹),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]

1.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2. 지난 8월 23일,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, 아리셀-에스코넥 대표이사 박순관, 아리셀 경영본부장 박중언, 메이셀 대표, 아리셀 안전관리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. 사고 경위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.
3. 이에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피해자들과 연대해온 노동법률단체에서 아리셀-에스코넥 대표이사 박순관과 아리셀 총괄본부장 박중언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

다.

4.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. 끝.

**아리셀-에스코넥 대표이사 박순관, 아리셀 총괄본부장 박중언 구속촉구  
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**

- 일시: 2024. 8. 27.(화) 10:00
- 장소: 수원지방법원 북문(상가 방향)
- 주최: 노동법률단체 [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,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, 민주주의법학연구회, 법률원(민주노총·금속노조·공공운수노조·서비스연맹),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]
- 주관: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
  
- 사회: 손익찬 변호사
- 발언:
  -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성호 회장
  - 민주노총 법률원 박지아 변호사
  - 민변 노동위원회,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
  -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
  - 기자회견문 낭독

2024. 8. 26.(월)

노동법률단체 [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,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
노동위원회, 민주주의법학연구회,  
법률원(민주노총·금속노조·공공운수노조·서비스연맹),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
법률위원회]